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화재피해 취약계층에 새 보금자리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는 올해 6월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풍남동 주민들에게 긴급주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4일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었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지난해 7월 설립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증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긴급주거개선은 사업화제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풍남동 민가를 계성건설(주) 등 9개 기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이번 사업 지원대상자 박 모 씨는 “큰 화재로 인해 망연자실하고 있었는데 주거복지센터의 솔선수변으로 말끔하게 복구된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은주 센터장은 “집 걱정없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추석명절 情 넘친 이웃사랑’

### 우아2동 사랑의울타리·노인회, 소외계층에 백미·라면 등 전달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에 사랑의 손길이 전해졌다. 우아2동 사랑의 울타리(회장 김미자)는 최근 관내 소외계층에 백미와 라면(100만원 상당)을 전달 위로했다.

또한, 대한노인회 우아2동 김용식 회장도 이에 동참해 커피 21박스를 전달하는 등 코로나19로 친한 소외계층들에 따뜻한 정을 나타냈다.

우아2동 사랑의 울타리와 노인회는 해마다 명절과 연말연시, 삼복 등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각종 후원과 행사를 벌이고 있어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이웃돕기 행사에 이명연 전북도의회 의원(환경복지위원회)과 서난이 전주시의원이 동행해 현장 의정을 펼쳤다.

김미자 사랑의 울타리 회장은 “풍성해야 할 명절에 허로 계시는 어르신과 아이들을 생각해 이번에는 백미와 라면을 전달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

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으로 사랑의 울타리 현장 봉사는 줄어들었으나, 다른 방법으로 우리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과 늘 함께하는 봉사단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식 노인회 회장은 “우리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 어려울 때 일수록 더욱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사회의 미덕이 아니겠느냐”며 “우아2동 노인회 또한 지역의 어른들로서 소외된 이웃을 돋는 활동은 지극히 당연하게 할 일”이라고 말했다.

장덕현 우아2동장은 “매번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봉사와 후원을 마치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울타리와 노인회 어른들께 감사드린다”며 “나눔의 손길이 모두 코로나19를 함께,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남원용성로타리클럽, 소외된 이웃에 온정 나눔

남원지역에서 시민과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칭송받고 있는 남원용성로타리 클럽(회장 임종명)이 지난 추석에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나눔에서 용성을 넘은 남원시 관내 기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30여 가정을 추천받아 400만 원 상당의 현물(백미, 라면, 생활필수품, 김, 화장지 등)을 전달한 것이다.

이번 나눔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이 모아진 것으로 회원 상호간 훈훈한 정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 같은 정은 해마다 명절에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임종명 회장은 “이번 후원은 코로나19로 어느 때 보다 힘들게 보낼 지역 소외 계층에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 위촉



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대표협의체 심의 안건 사전 검토,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 및 협력도모 등 여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환주 시장은 “시민에게 민족을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 주체인 공공과 민간 분야의 긴밀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님들의 큰 활약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자산관리전북지사, 농업인 돋기행사 실시

농협자산관리전북지사(지사장 김성수)는 농업인 신용회복 컨설팅을 통해 신용회복 중인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지난 17일 ‘추석 명절맞이 농업인 돋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성수 농협자산관리전북지사장과 송혁 농협전주완주지지군부지부장, 김종체 회신농협 조합장이 참석해 농업인을 격려하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지원을 받은 회신면 박씨는 “추석맞이 행사를 통해 따뜻한 명절을 맞을 수 있게 꽤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성수 지사장은 “체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용회복지원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농협자산관리전북지사가 올해 초부터 실시하는 농업인 회망동행 프로젝트는 농업인 신용회복컨설팅 제도로 신용을 회복한 농업인에게 체무로 힘들었던 시간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수 있도록 범 농협이 함께 응원과 격려로 재기 의지를 북돋아주는 프로젝트다. /김윤상 기자



인후3동 새마을협, ‘사랑의 밀반찬 나눔’ 봉사

전주시 인후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황승일)은 지난 23일 거동이 불편한 관내 어르신 5가구를 방문해 정성껏 준비한 밀반찬을 전달했다.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매주 수요일 밀반찬 나눔 봉사를 통해 저소득층 흙콩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 이웃 공동체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황승일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흙콩어르신들의 반찬 걱정을 덜어드리고 건강을 챙겨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밀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의 이웃사랑 나눔실천은 일회에 그치지 않고 이미용봉사, 취약지역 환경정비, 흙콩어르신 생일케이크 전달 및 장수사진 활용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 전개해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매일

[www.jmaci.com](http://www.jmaci.com)

등록번호 전북 140616

2004년 11월 23일 등록(의기)  
(주)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내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35-4113  
상권지사  
010-2333-4791  
사학지사 272-9417  
호자지사 010-8845-9935

중인지사 010-9088-6874  
인후지사 246-6865  
송천지사 256-2104  
필복지사 256-6844  
군신지사 010-6789-0088  
의성지사 688-9923

\*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순창소방서, 응급처치 집중 홍보기간 운영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응급처치의 중요성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내달 10일까지 ‘응급처치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홍보는 심뇌혈관질환 사망과 급성심장정지 발생 사망이 증가하는 시기(10월 ~12월)를 앞두고 상황별 응급처치의 중요성 교육·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응급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다. ▲ 119 고생방법 등 고령자 사고우형에 따른 안전한 생활교육 ▲ 심폐소생술 시행 및 압 활용방법△생활밀착형 매체 및 생활용품 홍보문안 삽입 ▲각종 응급처치교육 언론보도·SNS 홍보 등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